가계 빚 1360조원…3개월새 17조 증가

〈3월말 잠정치〉

심사 강화·청약규제 효과 미미…증가세 사상 2번째

2금융권은 7조4000억 늘어…경제 성장 걸림돌 우려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이 올해 1분기 1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3월 말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1.3%) 늘었다. 1분기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 가량 줄었고 작년 4분기(46조1000억원)와 견줘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 1분기에는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적은 편이다.

올해의 경우 1분기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규모가 크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약 4조5000억원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한것은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청약규제를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등 여러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계신용에서 대출 잔액은 1286조6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6조8000억원(1.3%) 늘었다.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618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와 비교해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분기에 7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7조6000억원)와 비슷하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와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수요 이전 등으로 증가액이 작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상호저축은행 잔액이 19조3682억원으로 1분기에 1조833억원 늘었다.

저신용·저소득층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을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호금융은 174조348억원으로 2조9830억원 불었고 새마을금고는 2조5천288억원, 신용협동조합은 8353억원 각각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2조10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73조원으로 3000억원(0.4%)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이 6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 잔액은 8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가계신용

가계부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네이버, 기업 경영평가 1위

8개 부문 1위…CJ·삼성 順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영 전반에 걸쳐 가장 탁월할 성과를 거둔 업체는 네이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투자,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투명경영, 건실경영, 양성평등, 사회적 기여 등 8개 부문을 심층 평가한 결과 네이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는 사회적 기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경영실적(6위), 건실경영(7위), 일자리 창출(11위), 글로벌 경쟁력(12위)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사회적 기여, 투자, 양성평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 투명경영, 건실경영 부문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3위에 그쳤다.

이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G화학, KT&G, 풍산, 녹십자, SK하이닉스 등이 '톱10'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스팅어(Stinger)' 공식 출시 행사에서 김창식(왼쪽부터) 기아차 부사장(국내영업본부장), 이형근 부회장, 박한우 사장, 그레고리 기욤 수석 디자이너, 정락 부사장(총괄PM담당)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첫 고성능 세단 '스팅어' 출시

세단 첫 사륜구동 개발…안전·첨단 사양 장착

기아자동차가 고급차 라인업의 첫 번째 모델인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Stinger)를 23일 공식 출시했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파르나스에서 스팅어의 공식 출시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스팅어에는 전고가 낮고 후드가 길어 무게 중심이 낮은 '다운포스 디자인'이 적용됐다. 전면에는 기아차 상징인 호랑이코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 강렬한 인상이 강조됐다. 측면에는 수평으로 뻗은 높은 벨트라인으로 역동적인 이미지가 구현됐다.

스팅어는 전 모델에 2세대 후륜 8단 자동변속기가 기본 장착돼 부드러운 변속감과 동급 최고 수준의 전달 효율을 발휘한다.

기아차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사륜구동 모델도 함께 개발됐다.

5가지 주행 모드와 주요 주행정보를 앞유리에 이미지 형태로 투영해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를 비롯한 첨단 주행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이 갖춰졌다.

판매 가격은 ▲2.0 터보 프라임 3500만원, 플래티넘 3780만원 ▲3.3 터보 마스터즈 4460만원, GT 4880만원 ▲2.2 디젤 프라임 3720만원, 플래티넘 403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11.74 (+7.71)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1)
- 코스닥 644.73 (+2.11)
- 환율 (USD) 1124.20원 (+5.60)

한전, 아프리카 진출 청신호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수출촉진회…2228만불 수출상담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5일~19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KOTRA와 함께 중소협력기업의 아프리카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하여 2228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촉진회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직접 현지 바이어와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총 87건의 상담을 통해 2228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려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

한전은 수출촉진회에 참여한 10개 중소기업의 부스임차비, 통역비, 차량비 등 행사시 발생하는 제비용 100%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전력 신기술 세미나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SCADA, DAS 등 전력 신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편,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다.

한편, 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 러시아·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알제리·모로코에서 수출촉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란 등 4개국의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과 동반 참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망 바이어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국세청 '알기쉬운 세금정보' 책자 배포

가업승계·세정 제도 등 담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지역 상공인에게 유익한 알기 쉬운 세금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호남지역 상공인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 책자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관심이 많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자료, 세정지원 제도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역 상공인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세무상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남지역의 전통 향토 지정업소(146개 업체)의 제품, 홈페이지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건의한 데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상공회의소에 100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지역에 100부를 무료 배포했다.

김희철 청장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